믿음은 하는 거고 행위는 맺히는 거다

(고린도후서 3:6~11)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하는 거고 행위는 맺히는 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은 하는 거고 행위는 맺히는 거다"

믿음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몸의 행위는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사도들을 분명히 구분하여 교회에서 축출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 조직이 발급해주는 자격증을 들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판을 뒤집어엎고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는 중에 해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란 교인들 스스로가 말씀하는 자의 보냄 받음의 여부를 확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긴 많은 문제점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생긴 문제, 나라 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재정 상태에 대한 고민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점점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자리로 다가오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모두가 다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에서 세상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면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직면하는 상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을 때 또 세상이 담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직면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의 대전제는 하나님과의 직면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공통되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과 끊임없이 직면하게 만듭니다. 마음에서 많은 수의 사람을 직면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진리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정도라면 진리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은 교인의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에 더해 한 가지 기준을 더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이 있은 뒤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구 언약의 일꾼의 모양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과 구 언약의 일꾼은 그 말씀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구 언약의 일꾼의 모습을 띤다면 거짓 사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인 구약시대에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에 집착하는 그런 일꾼과 사역자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구 언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 언약은 달과 같아서 새 언약인 태양이 뜸과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태양이 뜬 시점에서 자꾸 달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이것의 구분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몸의 행위의 차이점을 아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행위이고, 몸의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써 맺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망각하고 있는 자들이 거짓 사도입니다. 이 기준은 교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기준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성령이 그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이 그 마음에 거짓 사도의 말씀이 수용되게끔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는 것이고 행위는 몸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참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앞서 살펴본 로마서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글자로 쓰인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어렴풋이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 기준에 어긋나는 거짓 사도들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역자에 대한 내용은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루할 수 있지만 탁월한 장점도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갖추기 위하여 먹어야 하는 내용들이 골고루 배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임의로 본문을 고르면 아무래도 설교자 자신이 좋아하는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해나갈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본문을 대하면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메시지가 쉽게 떠오르는 본문보다도 훨씬 더 깊고 귀하고 감동적인 영적 실상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짓 사도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으로 거짓됨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도를 보내시듯이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된 자들을 우리 주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사실로 알고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복음과 연관된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6절을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죽이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이 죽이는 이유는 율법의 존재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상태를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손으로 도구를 쥐고 사용하는 것처럼 몸을 이용하여 마음이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는 바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죄의 상태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을 움직여 행위함으로써 얻으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선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선민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몸을 움직여 가는 죄의 상태가 부름 받은 선민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몸을 움직여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인격적인 조직 상태가 죄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마음으로 몸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주신 행동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 언약이라고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통해 제시되었듯이 선민들은 결국 구 언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죄악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율법의 목적이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보니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할 여지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다.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몸을 도구처럼 쥐고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니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구 언약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행위 원칙을 따라가며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죄악 된 나를 죽은 자로 여

기게 되면 새 언약인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와 동일시하여 연합하게 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으로 행위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몸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길까지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럴 때 몸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글자로 내 바깥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제시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생각이 났을 때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모세의 직분을 언급합니다. 7~8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돌판에 쓴 율법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정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율법도 이러했을진대 영원한 성령을 받게 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은 해가 뜬 대낮에 달빛을 찾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시대에 율법의 모든 조항은 나의 힘으로 지켜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자는 참 사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몸의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행위입니다. 마음의 행위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좋음을 믿기에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몸으로 율법을 지키던 때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거짓 사도들을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사역자는 자꾸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십계명이나 율법서의 조항들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율법이란 내 마음으로 내 몸을 수단처럼 붙잡고 움직일 때 따라야 할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봉사와 충성이라는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 구제, 섬김, 희생 등등이 율법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건강이고 돈이고 축복이라면 이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일 목표로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구원은 이미 된 것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받을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구 언약의 시대로 회귀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꾸 내 마음으로 몸을 수단처럼 붙잡고 움직여야 한다는 행동 원칙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 사도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닌 마음으로 행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는 마음이 해야 될 행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행위인 믿음은 다 된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몸의 행위 또한 성령의 열매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믿음이 철저히 행해질 때 몸의 행위는 성령의 열매로 맺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는 24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마음의 행위를 끝난 것으로 알고 몸의 행위를 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짓 사도입니다. 이것은 봉사, 충성, 섬김, 희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 기도, 회개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마음에서 믿음을 함으로써 맺혀지는 열매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면서 몸으로 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24시간 365일 마음에서 지속되어야 할 믿음의 행위는 제쳐두고 하지 말아야 될 몸으

로 하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는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따르는 것은 그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했던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고 나면 회사에 가서 하는 나의 모든 몸의 행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하라, 지혜롭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규칙 같은 것을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몸의 행위는 오직 성령께서 내 몸을 이용해서 이루셔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 나대려고 하는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마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를 직면하는 일은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지는 성령님이 해나가십니다. 내 몸이 어떤 현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에서는 행위가 열매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동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사도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마음이 들어감으로써 일어나는 마음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직면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시는 대로 거짓 사도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불편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알아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24시간 365일 남은 삶을 마음으로 믿음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몸의 행위는 성령께서 열매가 맺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허락하신 이 놀랍고도 복된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과 의식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행위인 믿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우리 몸의 행위가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